

250장 -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 (1)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 (2)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 (3)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 (4)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 (후렴)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95장 - 큰 죄에 빠진 나를

- (1)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 (2)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 (3)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 (후렴)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월 1일(목) 기도 담당 : 김인호 집사

2018년 2월 28일(수)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50장 다 같 이
기 도 최진욱 집사
성 경 봉 독 창 2:4~17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하나님의 모험』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295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2월 28일(수)	창 2:4~17	하나님의 모험
3월 2일(금)	창 2:18~25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 이른아침예배 시 성경책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2월 28일(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진솔한 삶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나의 허물로 인해 주님이 찢리셨고, 나의 죄악으로 인해 주님이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으며, 우리의 나음을 위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수난과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낸다는 말만 할뿐, 내 삶은 그리 변한 것이 없으며, 내 마음도 그리 바뀐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뎀진 저희의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 은혜로 새성전 건축이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성전 건축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어 모든 일정과 작업을 세밀하게 주관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속에서도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의 불로 지키시며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시사 성전건축이 그들의 삶에 복의 시작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성전이 이 시대를 밝히는 주님의 등대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건축물이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담임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열매가 새문안교회에 잘 이뤄지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문화 전반을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이 나라를 고치시며,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